

악취 유발 사업장 추적·관리... 대응체계 가동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수년 간 지속되고 있는 여름철 도심지역 악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본격적인 가동에 나섰다.

악취감시와 신고체계를 24시간 풀가동하는 등 올해 초 환경부가 발표한 '제2차 악취방지 종합대책(2019 ~ 2028)'의 기본 방향을 토대로 전년보다 더 강력한 악취저감 대책을 추진해 민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익산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3억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요 악취배출사업장과 인근 주거지역에 악취측정기 10곳, 통합 기상측정기 2곳, 서버 및 보안장비, 운영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익산악취24' (<http://odors.iksan.gov.kr>)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악취피해지역의 악취 수준을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악취모니터링 및 모델링을 통해 악취유발 사업장을 추적·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익산시, 악취방지 종합대책 기본방향 토대 민원 최소화 '익산악취 24' 구축·상황실 운영·전문인력 상시 근무

악취측정기는 주요 악취유발물질인 황화수소, 암모니아,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및 복합악취를 30초 단위로 측정하고 통합 기상측정기의 온도, 습도, 풍향, 풍속 등 데이터를 전송받아 실시간으로 악취발생 농도 값을 보여준다. 특히 실시간 악취측정값에 따른 복합악취농도(OU)를 숫자와 색깔로 표시해 시민들도 한 눈에 악취 발생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실시간 악취측정기는 익산제1·2산단 주변(7), 동산동(1), 왕궁·춘포면(2)에 설치했으며 주요 악취피해지역인 부송동 동아2차와 춘포면 고려온천아파트는 무인악취시료채취기가 추가로 설치돼 주거지역 악취 불편

상황이 수시로 점검될 예정이다.

실시간 악취발생 현황 확인은 인터넷 주소창에 <http://odors.iksan.gov.kr>을 입력해 접속하거나 휴대폰에서 '익산악취24' 앱을 설치한 뒤 관측이 가능하며 악취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 시 악취신고 탭에서 악취강도, 종류, 위치를 입력하면 된다.

이달 선반된 악취모니터링요원도 교육을 거쳐 6월부터는 활동사항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이는 통계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익산악취24'는 24시간 감시체계로 악취발생사업장에 경각심 고취 및 자체 시설관리를 유도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및 측정값은 사업장

지도·감독에 활용됨으로써 악취 민원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익산시는 올해 초 수립한 악취배출사업장 관리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악취배출시설 점검 및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악취관리지역인 산단 내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사업장은 최근 2년간 위반 여부에 따라 우수, 일반, 중점관리 사업장으로 분류해 관리되고 있다.

시는 이달 기존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사업장 중 80여 곳을 점검했고 그 중 법적허용기준을 초과한 3곳에 개선명령을, 방지시설 신고 미이행 사업장은 경고 및 과태료를 처분했다.

또한 주요 악취 민원 유발사업장이나 노후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단속 및 환경기술인 교육을 통해 시설개선

을 유도하고 있다. 현재 16개 사업장에서 37억 8천만 원을 투자해 시설을 개선하고 있다.

익산시는 하절기 악취관리 및 심야시간대 민원 해소를 위해 지난 13일부터 야간 악취상황실(☎831-8020)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악취 유관부서 직원들이 근무자로 편성돼 민원 발생 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악취해소계와 축산악취계 직원으로 구성된 악취전문인력을 편성해 상시근무 태세를 갖추고 민원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예정이다.

악취상황실 근무자는 '익산악취24'로 실시간 악취발생 상황을 감시하고 시스템 및 유선을 통해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 확인은 물론 필요 시 사업장에 대한 야간 악취포집도 실시해 24시간 악취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익산=장인천 기자

국가기준점 일제조사 완료

익산시(시장 정현율)가 지역 국가기준점 96점에 대한 측량표지 일제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가기준점은 측량의 정확도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 국토를 대상으로 주요지점마다 정한 측량의 기본이 되는 측량기준점이다.

익산시 국가기준점은 △통합기준점 19점 △삼각점 48점 △수준점 29점이 있다.

시는 국가기준점 일제조사를 위해 조사반을 편성하고 현지조사 등을 거쳐 기준점의 망설 및 훼손 여부를 조사했다.

국가기준점 96점을 모두 조사한 결과 망설 2점, 기타 2점으로 확인됐으며 망설되거나 훼손된 기준점 표지 4점에 대해서는 국가기준점을 총괄하는 국토지리정보원에 통보해 정비할 예정이다. /익산=장인천 기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강좌

군산시보건소(소장 정형태) 산하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아동, 청소년 자녀와 부모를 위한 친구관계 멘토링 강좌 '알쓸신친'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박한 친구교인 해결법)을 실시한다.

이번 공개강좌는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의 정신건강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며, 친구를 어떻게 잘 사귀는 방법과 바람직한 친구관계, 인생에서 친구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6월 7일 9시 30분에 군산시 보건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신청기간은 5월 22일부터 6월 5일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군산=김정훈 기자

소화전 주변 주차금지

적석노면표시 추진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가 화재 등 재난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소방서는 소화전 주변 주차 금지 제도 개선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소화전 주변 주차차 금지표시 필요지역의 적석 노면 표시를 추진한다.

지난 4월 3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차량이 화재 장소에 원활하게 접근해 신속하게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화전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인 곳에 안전표시를 설치하고 연석이 설치된 곳에는 연석 윗면과 측면에 적석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에 군산소방서는 적석표시지역 477개소를 선정해 군산경찰서에 교통안전시설설치 심의를 요구하는 한편 심의결과가 통보 되는대로 적석노면표시 설치를 시와 협의해 추진하며 해당 안전표시가 설치된 곳에서 주차 및 승합자동차는 9만원, 승용자동차는 8만원의 과태료와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직제규정 개정... 익산시체육회 정상화 '시동'

체육회장 권한·책임 강화, 조직 재구성

익산시체육회가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익산시체육회는 지난 23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그동안 시의회에서 지적된 사항과 비상대책위원회의견 및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바탕으로 직제규정 등 총 8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들은 익산시체육회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일하는 체육회 조직구성을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체육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개정하고 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각종 제도의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 지난 4월 전북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했다.

이후 지난 1일과 23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올해 예산안 등 총 8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체육회는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고창에서 열린 제56회 도민체전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으로 종합성적 2위라는 쾌거를 이룩했다.

이는 체육회장과 임원을 중심으로 체육회와 익산시 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도민체전에서 우리 선수단이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고 각 경기장마다 생활체육지도자를 파견해 선

수단과 유기적인 연락과 체계적으로 지원을 한 결실이다.

익산시체육회는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도 우리 선수단이 훌륭한 성적을 거두기를 기원하며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사전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10여개 출전 종목 선수단을 격려했으며 21일부터 고창에서 개최된 장애인도민체전에도 생활체육지도자를 파견해 선수단의 활동과 운영을 지원하는 등 지역 체육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편 익산시체육회는 지난해 제212회 의회 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과도한 이사회 임원 선임과 무분별한 이사회비의 편성, 생활체육지도자 복무관리 부실 등을 지적받아 올해 본예산에 운영비 전액이 삭감됐었다. /익산=장인천 기자

생산비 절감 '벼 소식재배·직파기술' 확대 보급

익산시, 벼 이앙 현장 연시회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생산비가 절감되는 벼 소식·직파 재배기술을 확대 보급한다.

이를 위해 지난 23일과 24일 시범실증포장에서 농업인 및 관계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벼 재배기술 현장 연시회를 실시했다.

벼 소식재배는 육묘 모판수를 줄여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기술로 이번 연시회는 용인면 시범농가 포장에서 벼 육묘상자 전시와 이앙 연시로 진행했다. 신동진과 보란찬 2개 품종에 대해

파종량을 200g, 250g, 300g으로 달리해 육묘상자와 소식재배 핵심기술 화관을 전시해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특히 소식재배 이앙연시는 평당 관행 이앙주수 80주를 50주, 43주, 37주로 줄여 3가지 유형을 선보였다.

기존재배 방법보다 이앙기 조작에서 횡 이송을 관행 20회에서 30회까지로 늘리고 종 이송을 절반으로 줄여 재식밀도는 넓고 주당 이앙본수는 줄여서 식재하기 때문에 육묘비용 절감과 노동력 절감 병해충 및 도복에 강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벼 직파재배 연시는 무논점파 방식으

로 볍씨 싹을 띄워 육묘상자에 육묘하지 않고 직접 논에 파종하는 방법으로 춘포면 시범농가포장에서 실시했다.

벼 소식·직파재배 시범사업은 농촌인구 고령화 및 일손 부족에 따른 벼 생력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올해 소식재배 250ha, 직파재배 30ha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술보급과 관계지는 "신기술 보급에 대한 농업인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연시회를 개최했다"며 "이후에도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회를 개최해 기술보급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농업인들에게 현장 중심 컨설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시 수송동행정복지센터(동장 김경배)와 수송동천사누리지역사회보장협의회(위원장 임성택)가 공동으로 주관한 나눔과 희망의 애정촌 만들기 아나바다장터가 큰 호응을 얻었다.

수송동 '아나바다 장터' 대성황

먹거리 등 다채 '호응'

민선7기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시가 지역주민들 스스로의 적극적인 참여로 뿌리내리고 있다.

이와 관련 군산시 수송동행정복지센터(동장 김경배)와 수송동천사누리지역사회보장협의회(위원장 임성택)가 공동으로 주관한 나눔과 희망의 애정촌 만들기 아나바다장터가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25일 수송체육공원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680여명이 장터운영에 참가하고 7천여명이 행사장을 찾아 나눔거리, 먹을거리, 체험거리, 볼거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운영했다.

나눔거리는 생활용품, 책, 의류 등으로 지원 재할용과 환경사랑을 실천하고 수익금 일부를 성금으로 서울 기탁하는 등 이웃을 위한 나눔

문화 분위기를 이끌어냈다.

먹을거리는 수송동 통장협의회와 부녀회, 발전협의회가 다양한 도시 군산시가 지역주민들 스스로의 적극적인 참여로 뿌리내리고 있다.

이와 관련 군산시 수송동행정복지센터(동장 김경배)와 수송동천사누리지역사회보장협의회(위원장 임성택)가 공동으로 주관한 나눔과 희망의 애정촌 만들기 아나바다장터가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체험거리와 먹을거리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은 전액 기부되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주민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볼거리로는 전북 문화·나눔사업인 '신나는 예술버스' 공연단의 매직 미술쇼, 비보이 공연, 비누방울 퍼포먼스, 풍선쇼 등의 풍성한 내용으로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한편, 수송동 아나바다 장터는 올해로 7년째로 군산의 대표적인 주민 참여 놀이터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